

한국 남자 테니스 “15년 만에 세계 16강 가자”

4~5일 오스트리아와 데이비스컵 예선...이거면 9월 파이널스 진출 에이스 권순우 등 출격...박승규 감독 “홈경기 이점 살려 승리할 것”

한국 남자 테니스가 15년 만에 세계 16강에 도전한다.

박승규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남자 테니스 대표팀은 4일부터 이틀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실내코트에서 오스트리아와 데이비스컵 예선(4단 1복식) 경기를 치른다.

남자 테니스 국가대표전인 데이비스컵은 해마다 세계 16강이 출전하는 파이널스를 통해 우승팀을 정한다.

올해 16강은 이번 예선에서 승리하는 12개 나라와 지난해 결승에 오른 러시아, 크로아티아, 와일드카드를 받은 영국과 세르비아로 구성된다.

다만 러시아가 2일 국제테니스연맹(ITF)의 제재로 앞으로 별도 발표가 있을 때까지 데이비스컵 등 국가대표전에 출전하지 못해 올해 파이널스에는 나올 수 없다.

우리나라가 데이비스컵 16강에 진출한 최근 사례는 2007년 9월 슬로바키아를 3-1로 물리친 것이다.

이번 대회에 우리나라는 에이스 권순우(65위·당진시청)를 비롯해 정운성(367위·의정부시청), 홍성찬(571위·세종시청), 남지성(복식 247위·세종시청), 송민규(복식 358위·KDB산업은행)가 출전한다.

오스트리아는 세계적인 톱 랭커인 도미니크 팀(51위)이 결장하지만 테니스 노바크(143위), 유리 로디오노프(194위), 알렉산더 엘러(복식 105위), 루카스 미들러(복식 117위)가 나온다.

한국에서는 권순우가 단식에서 2승을 따내고, 남은 두 차례 단식과 복식에서 1승을 추가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따라서 권순우와 오스트리아 1번 선수인 노바크의 맞대결과 복식 경기 결과가 이번 대회의 승패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권순우의 뒤를 받칠 홍성찬이나 정운성이 단식에서 1승을 보탠다면 금상첨화다.

박승규 감독은 2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권순우가 2승을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복식 역시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며 “홈 경기의 이점을 잘 살려서 준비하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르겐 멜저 오스트리아 감독은 “작년에는 독일, 세르비아 등 강팀을 만나 졌는데 이번에는 이기기 위해 왔다”며 “실내코트가 약간 좁지만 준비를 잘해서 주위에 좋은 결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경기에서 이기는 나라는 9월 데이비스컵 파이널스 조별리그를 치르게 되고, 패하면 같은 기간 진행되는 월드그룹 1로 밀려난다.

9월 데이비스컵 파이널스는 4개 나라씩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벌여 각 조 상위 2개국 8강에 오르는 식으로 진행된다. 8강 토너먼트는 11월에 진행된다. 첫날인 4일 1, 2단식이 열리고 5일에는 복식과 3, 4단식이 진행된다. 대진은 3일 추첨을 통해 정해진다.

/연합뉴스



한국 남자 테니스 대표팀이 4일부터 이틀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실내코트에서 오스트리아와 데이비스컵 예선(4단 1복식) 경기를 치른다. 사진은 데이비스컵에 나서는 한국 대표팀. /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멕시코 동북부 누에보레온주 몬테레이의 클럽 소노마에서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몬테레이 오픈 본선 1회전에서 우크라이나의 엘리나 스비톨리나(왼쪽, 15위)와 러시아의 아나스타샤 포타포바(81위)가 경기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크라 스비톨리나, 러시아 선수 완파

출전 거부 반복 테니스 대회 참가 “상금 전액 우크라이나 군에 기부”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단식에서 우크라이나 선수 가운데 최고 랭킹에 올라있는 엘리나 스비톨리나(15위)가 러시아 선수를 완파하고 상금을 전액 우크라이나 군대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스비톨리나는 2일(한국시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린 WTA 투어 GNP 인슈어런스오픈(총상금 23만9477 달러) 단식 본선 1회전에서 아나스타샤 포타포바(81위)를 2-0(6-2 6-1)으로 꺾었다.

포타포바는 러시아 국적 선수로 WTA 투어가 이년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적의 선수들은 개인 자격으로만 출전을 허용해 국기와 국가명 표기 없이 코트에 나섰다.

스비톨리나는 전날 포타포바와 경기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가 WTA 투어가 러시아 국적 선수들의 개인 자격 참가만 허용하자 입장을 바꿔 경기

에 출전했다.

스비톨리나는 우크라이나 국기 색을 표현하기 위해 노란색 상의와 파란색 하의를 쓴 경기복을 입고 나왔다.

그는 “러시아 선수에게 질 수 없다”는 뜻이 경기 초반부터 포타포바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였고, 포타포바는 경기 도중 짜증이 난 듯 라켓을 코트 바닥에 내던지기도 했다.

16강 진출을 확정된 스비톨리나는 “이 대회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슬픈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경기에 전념하려고 했고, 우리나라를 위한 임무를 완수한 것 같다”고 말해 팬들의 박수를 받았다. 톱 시드로 출전한 스비톨리나는 “상금 전액을 우크라이나 군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3만1000달러(약 3700만 원)다. /연합뉴스

독주자 vs 추격자 ‘꿀잼 배구’ 챔피언서 또 볼까

현대건설 1위 확정 승점 1 남아 도로공사 챔피언결정전 진출 땀 또 한번의 라이벌 빅매치 기대

올 시즌 여자 프로배구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는 현대건설과 ‘추격자’ 한국도로공사의 6차례 정규리그 대결이 막을 내렸다.

현대건설은 지난 1일 도로공사를 세트 스코어 3-2로 따돌리고 올 시즌 상대 전적을 4승 2패 우위로 마쳤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승점 3을 따내지 못해 정규리그 1위 확정 추표를 터뜨리지 못했다.

도로공사의 저항이 그만큼 거셌다.

도로공사는 원정에서 1~2세트를 잃고도 경기를 5세트도 몰고 가 현대건설의 1위 확정을 저지했다.

현대건설이 남은 5경기에서 승점 1만 추가하면 자격으로 챔피언결정전 직행을 확정하기에 1위 싸움 의미는 사라졌다.

관련 포인트는 맞붙으면 꿀맛 재미를 선사한 두

팀이 봄 배구에서도 흥미진진한 경기를 펼치느냐다.

현실적으로 플레이오프 출전이 유력한 도로공사가 챔피언결정전에 올라와야 또 한 번의 빅매치가 예상된다.

시즌 개막을 앞두고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된 도로공사와 여자부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고 독보적인 1위를 질주하던 현대건설의 대결은 시즌 내내 화제의 대상이었다.

특히 도로공사가 지난해 12월 7일 개막 12연승을 질주하던 현대건설을 3-2로 따돌린 뒤 라이벌 구도가 자리잡았다.

도로공사는 지난 1일 4라운드에서 현대건설에 1-3으로 졌으나 현대건설의 16연승 도전과 정규리그 1위 확정이 동시에 걸린 2월 23일 5라운드 대결에서 3-0으로 이겨 다시 한번 ‘천적’의 재능을 뽐냈다.

현대건설이 거둔 28승 3패라는 초유의 높은 승률(90.3%)에 가렸을 뿐 23승 8패를 올린 도로공사의 승률(74.2%)도 무시할 수 없다.

현대건설에 올 시즌 두 번이나 패배를 안긴 도로공사의 강점은 공수의 완벽한 조화에 있다.

도로공사는 1일 경기에서 초반 현대건설 레프트 황민경과 고예림의 분전에 자주 실점했지만, 현대건설 주포 야스민 베다르트(등로명 야스민)을 잘 묶어 팽팽한 접전을 이끌었다.

도로공사는 강점인 그물 수비로 야스민의 공격을 번번이 걸었다.

올 시즌 공격 종합 2위(성공률 42.81%)를 달리는 야스민의 공격 성공률은 도로공사만 만나면 38.49%로 떨어진다.

정대영과 배유나, 켈시 페인(등로명 켈시)의 만만치 않은 블로커 진과 함께 디그와 수비 1위 리베로 임명욱의 존재감이 야스민의 위력을 떨어뜨린다.

공격에서는 현대건설이 도로공사에 박빙 우세라면, 수비에서는 리시브, 디그, 수비 세 부문 1위를 질주하는 도로공사가 우세하다.

장기 레이스와 달리 단기전에서는 수비가 명암을 가르는 만큼 도로공사가 밀릴 건 전혀 없다.

정규리그 마지막 맞대결을 통해 두 팀은 어떻게 해야 상대를 꺾을지 자신감을 얻었다.

인기와 실력을 겸비한 두 팀의 최후의 승부가 연출될지 기대감이 커 간다. /연합뉴스

장애인 실용사격 보급·활성화 힘 모은다 장애인·실용사격연맹 협약

대한장애인사격연맹(회장 문상필)이 최근 장애인 실용사격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해 사단법인 대한실용사격연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장애인사격연맹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문상필 대한장애인사격연맹 회장을 비롯해 육성완 부회장, 김형준 이사 등 대한장애인사격연맹 관계자와 김준기 회장 및 최대진, 나홍진, 신복섭 이사 등 대한실용사격연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

문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장애인 실용사격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최초로 도입하는 것”이라며 “대한실용사격연맹과 협조해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실용사격 도입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격에 대한 흥미유발과 접근성을 확보해 장애인들에 대한 사격종목 저변확대와 신인선수 발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기 사단법인실용사격연맹 회장은 “실용사격(IPSC) 세계연맹은 이번 계기를 매우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한국이 주도하는 IPSC 장애인 부분 실용사격의 공식 도입도 IPSC 세계연맹과 협의 중이다”며 “대한장애인사격연맹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장애인 실용사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용사격(IPSC)은 고정타겟, 움직이는 타겟, 장애물 등을 극복하며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사격하는 선수가 우승하는 스포츠 사격으로 비장애인, 장애인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더 배트맨
- 2관 더 배트맨, 극장판 주술회전 0, 극장판 바다 탐험대 옥토포닉: 해저동굴 대탈출
- 3관 더 배트맨, 시라노
- 4관 더 배트맨
- 5관 더 배트맨, 김메이커
- 6관 언차티드
- 9관 해적: 도깨비 깃발
- 7관 세네카를 안테벨름, 나이트메어 앨리, 나일 강의 죽음
- 8관 세네카를 언차티드, 극장판 주술회전 0,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클래식 사파리

GAC기획공연 포커스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
일시 : 2022.03.03.(목)-04.(금)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GAC기획공연 포시즌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2.03.25.(금)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

즐거움
문화산책